



해외에너지 정책동향

출처 : 에너지경제연구원

도쿄전력, 대규모 수요자용 전기요금 순차적으로 인상

- 도쿄전력은 4월 1일부터 기업, 지자체 등 대규모 수요자용 전기요금을 순차적으로 평균 17% 인상하기 시작함.
- 도쿄전력은 4월 1일부터 대규모 수요자의 전기요금을 일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었으나, 계약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순차적으로 인상하기 시작함.
- 4월 1일부터 요금 인상에 대한 고객의 동의를 확보한 계약은 3월30일 기준으로 전체 요금인상 대상 23만7천건의 약 4.5% 수준인 10,550건에 그침.
- 도쿄전력은 요금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계약자들에 대해 계약갱신일까지는 현행요금 수준을 유지하고 직접적인 연락을 통해 요금인상 동의를 확인할 방침임.

(産經Biz, 2012.4.2-3; 毎日新聞; NHK, 2012.4.1)

러 정부, Shtokman 매장지에 조세혜택 제공

- 러시아 정부는 Shtokman 매장지에 조세혜택을 제공하기로 3월 30일 결정함.
- 조세혜택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진 바 없으나 Shtokman 사업 주주들은 가스 수출관세를 면제하고 지하자원채굴세를 감면할 것을 제안해 왔음.
- 이에 앞서 3월 29일 Shtokman 매장지 개발사업의 운영사인 Shtokman Development의 이사회에서 Gazprom, Total, Statoil은 Shtokman 매장지 개발에 대한 최종투자 결정(FID)을 7월로 연기한 바 있음.
- Shtokman Development의 지분구조는 Gazprom 51%, Statoil 24%, Total 25%임.
- Shtokman 매장지는 러시아 Murmansk 지역에서 동북쪽으로 600km 떨어진 바렌츠해 중심부에 위치함.

- Shtokman 매장지의 확인매장량은 가스 3.9Tcm, 가스 콘덴세이트 5,610만 톤이며, 이 중 Gazprom이 개발권을 갖고 있는 지역에는 가스 3.8Tcm, 가스콘덴세이트 5,340만 톤이 매장되어 있음.
- Shtokman 매장지에서의 첫 가스생산은 2016년 4분기로 예정되어 있음.

(Gazeta, 2012.3.30)

푸틴 총리, 러시아 가스산업 발전방향 제시

- 러시아 푸틴 총리는 3월 23일 Kirishi시에서 개최된 러시아 가스산업 발전방향에 관한 회의에서 가스산업의 향후 우선순위 과제를 제시함.
- 푸틴 총리는 러시아 내수시장과 유럽 및 아·태지역 국가들을 포함한 국제시장에서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가스산업 발전전력을 세워야 한다고 언급함.
- 푸틴 총리가 제시한 우선순위 과제는 다음과 같음
- 가스 인프라 개선, 가스분배망의 병목구간 확장, 신규 가스저장시설 건설
- 러시아 내 가스 공급사업 확대(현재 러시아의 가스 보급률은 전체의 63.2%임)
- 매장량 확대를 위한 북극해 대륙붕을 포함한 신규 지역 지질조사 실시
- 최신 친환경 및 자원절약기술 도입, 수반가스를 포함한 가스 정제시설 확대
- LNG 시장개발 촉진
- 경쟁 촉진을 통한 가스부문 효율성 제고
- 푸틴 총리는 LNG 시장개발 촉진을 특히 강조하면서, 현재 진행 중인 사할린-II 사업 이외에도 향후 Yamal 및



Shtokman 매장지 개발과 함께 LNG 플랜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함.

(Interfax, 2012.3.28; Oilcapital, 2012.3.26)

EU ETS 적용기업, '11년 배출량 감소

• 4월 2일 EC가 발표한 잠정치에 따르면, EU ETS 적용을 받는 기업들의 2011년 CO₂배출량이 전년 대비 2.4% 감소함.

- 1,000개 기업에서 총 17억 1천만 톤의 배출량을 보고함.

- 자료가 발표되기 전, 분석가들은 2011년 배출량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었음.

- 2010년 배출량은 전년 대비 3.2% 증가한 바 있음

- EC는 최종 자료를 5월 중순 발표할 예정임.

• 2011년 배출량 감소는 주로 발전부문 배출량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며, 발전부문 배출량은 전년 대비 3.1% 감소한 12억 6천만 톤을 기록함.

- 발전부문 배출량 감소는 영국의 원자력 발전 가동과 따뜻한 겨울 날씨로 인한 독일의 전력수요 감소에 기인함.

- 철강 및 시멘트 등 발전부문 외의 배출량은 전년 대비 0.5% 감소함.

(ENDS Europe Daily; Point Carbon, 2012.4.2)

[표 1] '10-'11년 국가별 배출량 변화

국가	'10-'11년 사이 변화(%)	국가	'10-'11년 사이 변화(%)
오스트리아	-1.7	라트비아	-14.7
벨기에	-7.8	리히텐슈타인	-8.9
불가리아	-23.4	리투아니아	-6.1

키프로스	N/A	룩셈부르크	N/A
체코	-1.8	말타	+2.8
덴마크	-15.0	네덜란드	-6.0
에스토니아	+1.5	노르웨이	-0.9
핀란드	-15.0	폴란드	+1.5
프랑스	-18.6	포르투갈	+3.4
독일	-1.2	루마니아	+8.7
그리스	N/A	슬로바키아	+0.3
헝가리	-7.3	슬로베니아	-1.7
아일랜드	-8.8	스페인	+8.7
이탈리아	-0.9	스웨덴	-12.3
영국	-7.2	합계	-2.4

자료 : Point Carbon

일본 경제산업성, 에너지산업 해외진출 지원

• 경제산업성은 전력 가스 사업자의 해외진출 및 연료전지의 국제표준 획득을 지원할 방침임.

- 경제산업성 산하에 '에너지비즈니스 전략연구회'를 4월 17일 신설하였으며, 7월을 목표로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전략 및 정책 지원메뉴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임.

•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강점을 활용하여 일본 에너지산업의 글로벌화를 추진할 방침임.

- 전력 가스회사의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남미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스페인 전력회사 Endesa 등 유럽사업자 사례를 연구할 계획임.

- 일본의 전력 가스회사가 구축한 요금징수 시스템을 활용한 스마트 커뮤니티 사업 등의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임.

- 연료전지 등의 규격에서 국제표준을 획득하는 전력도 구축할 예정임.

(日本經濟新聞, 2012.4.16)